

우크라 전쟁 6개월...더 짊어지는 전운

모스크바서 '푸틴 사상가' 노린 차량 폭파...우크라 배후설 부인

크림반도 우크라 계릴라전...러, 독립기념일 24일 대공세 관측

우크라이나 전쟁에 변화의 기류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부터 크림반도까지, 안전지대로 여겨던 깊숙한 곳에서 폭발음이 터져나오면서 분노의 반격을 준비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전쟁 발발 6개월째를 맞는 날이자,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24일에 러시아가 대공세를 벌일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푸틴 사상가 노린 '차량 폭파'...전쟁 악화 우려도=19일(현지시간) 오후 9시30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발생한 차량 폭파사고는 러시아를 크게 자극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시 도요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 하부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이 차에 타고 있던 러시아 친정부 언론인 다리아 두기나(30)가 죽었다. 이 폭파는 원래 두기나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두긴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두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극우 사상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 찬성했고,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크렘린궁의 군사 행동을 선동했다.

우크라이나 공격 배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기관은 일단 수사결과를 봐야 한다고 배후를 속단하지 않지만 내부 매파들은 벌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크림반도에서 이미 우크라 계릴라전=우크라이나가 최근 계릴라 공격으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점령군에 작지 않은 피해를 준 바 있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앞서 이달 9일에는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항공부대 비행장에서 폭파 사고가 발생, 군용기 9대가 파괴됐다. 16일에는 크림반도 북부 잔코이 지역의 군부대 탄약고와 그바르테이

스코에 비행장에서도 폭발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애초 이런 크림반도 폭파 사건에 대해서도 함구하다 한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가 뉴욕타임스(NYT)에 "적 전선 후방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정에 부대의 작전"이라고 실토했다.

지난 19일에는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가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공격 주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크라, 긴급 경계태세 돌입=러시아의 반격

여부를 놓고 전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스크바 차량폭발 이전부터 러시아 내부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쟁 6개월째를 맞는 날이자,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24일에 맞춰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힘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수도까지 공격당했다고 여긴다면 반격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러시아 흑해함대는 순항미사를 탑재한 함선 5척과 잠수함을 전례로 추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분석했다.

거세지는 공세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하르키우는 36시간짜리 통행금지령을 발령했고, 수도 키이우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했다.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콘스탄티니우키에서 주민들이 식수를 채우기 위해 우물이 있는 한 주택 앞에서 줄 서고 있다. 이 집의 주인은 수도가 끊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를 물통에 채우도록 매일 2시간씩 우물을 개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순 폭우로 물에 잠긴 인도 갠지스 강변 21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에서 주민들이 갠지스 강변의 물에 잠긴 거리를 지나고 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기슭 지역에서는 최근 계속된 문순 폭우로 최소 37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일본 언론 한국 수출규제 재검토 의견 잇달아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주장 봇물

일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 하자는 의견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일본의 '주권 문제 충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 이후부터다.

마이니치신문은 22일 '한일관계와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사태 타개 양쪽이 움직일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욕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마이니치는 "한국 정권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여론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정권 비판의 재료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징용공 문제

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걱정되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호응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배경이지만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에도 큰 손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년 전 도입된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지난 18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에서 한일 현안에 관한 조율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 "3년 전 실시한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적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획자'...푸틴 전쟁 결심 지대한 영향

차량 폭파 암살 표적된 두긴은 누구

극우 사상가...유라시아리즘 창시

의문의 차량 폭파 사고로 딸을 잃은 '푸틴의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60)은 뉴욕타임스(NYT), CNN 등 미국 언론으로부터 극우 사상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획자'로 불린다.

NYT는 두긴이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이 된 '유라시아리즘'(Eurasianism)의 창시자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였던 두긴은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될 무렵 서방의 영향력

에 대해 러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방에 머물던 이런 극우 민족주의적 사상은 최근 몇 년 사이 러시아 정치권의 주류로 부상했고 급기야 '푸틴의 철학자' 로까지 불리게 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발표된 '미국이 이끄는 서방에 경도된 우크라이나를 해방할 것'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전쟁 선언에는 그런 두긴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CNN은 두긴이 러시아를 서구의 타락에 저항하는 유라시아 제국의 중심으로 보는 이른바 '러시아 월드'의 정신적 토대를 놓은 인물이자, 푸틴 대통령의 팽창주의 외교정책 입안자라고 평가했다. 두긴이 러시아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일부라는 '노보 로시야'란 개념을 되살려 강점 명분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런 그를 2015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변방의 극우주의자였던 두긴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부터 러시아의 극동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르는 유라시아 제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1997년 저작 '지정학의 토대'를 통해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 이 책은 당시 러시아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미 스탠퍼드대학 후버 연구소의 존 던롭 선임연구원은 2004년 "어떤 다른 책도 러시아 군대와 경찰, 외교정책 입안자에게 이 책보다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긴은 또 푸틴 정권에 대한 지지 표명에도 앞장섰다. /연합뉴스

미국인 절반 이상 "트럼프 수사 계속해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42%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NBC 뉴스가 지난 12~16일(현지시간) 미국의 등록 유권자 1천 명을 상대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결과(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0%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92%, 무당파의 61%가 수사에 찬성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21%만이 조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지난 8일 방첩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트럼프가 퇴임 당시 들고 나간 1급비밀 등 11건의 국가기밀 자료를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문건들은 자신이 퇴임 직전 기밀 해제한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반면 응답자의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책임이 있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5월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지지율은 지난 5월 조사와 같은 42%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5%였다.

NB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위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